

건축교육 4년제를 개선해나가며

On the Improvement of 4 Year Program in Architectural Education



문 창 호 / 이사, 군산대 건축공학과 교수
Moon, Chang Ho / Professor, Kunsan National University
mchangho@kunsan.ac.kr

1. 들어가는 말

건축분야의 위상을 높이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축학 5년제와 건축공학 4년제가 새롭게 도입되었다. 다소 극단적인 이 두 가지 건축교육 프로그램이 시행되면서 여러 가지 긍정적/부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금은 새로운 건축사자격제도가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학교마다 냉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건축교육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으로 생각된다.

필자는 평소 교육에서는 개혁보다는 개선이 더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우리학과는 기존의 4년제 건축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하며 발전시켜 오고 있다. 학교 교육과정을 보다 적절하게 표현하고자 2005년도부터 영문 명칭은 “Dep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에서 “Dept. of Architecture and Building Engineering”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

교과과정을 요약하면, 우리학과는 1-2학년 기간은 공통과정, 3-4학년 기간은 공학분야(시공+구조), 설계분야(설계+환경)로 구분하여 심화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은 우리 학회지에 여러 번 소개된 바 있다(이성수, “공학인증 KEC2005 군산대학교 건축공학프로그램의 교과영역 모델 소개”, 건축 0802. 김용이+송석기, “KEC 2005 인증기준 중 : 건축공학 및 유사영칭 공학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준에 대한 의견”, 건축 0606. 이성수, “건축학 과정을 고려한 건축공학 공학인증 교과과정 모델”, 건축 0606 등을 참조).

우리학과의 교육 프로그램 자체는 홈페이지나 학회지에 잘 소개되어 있으므로 생략하고, 이 글에서는 우리학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핵심이 되는 내용, 즉 전공분야와 취업, 교육제도와 교육인증, 학과교수들의 의사소통, 수요자들의 의견, 건축사자격제도에 대한 의견 등을 설계교수 입장에서 서술하고자 한다.

2. 전공분야와 취업

모든 교육에 대한 논의는 학생들을 분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학과의 지난 3년간 전공분야별 졸업생과 그들이 취업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우리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은 3학년이 되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전공분야를 선택하여 심화과정으로 들어간다. 물론 전공분야별 이수 교과목 차이는 그리 많지는 않으나 내용을 보면 충분히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정도는 된다. 표 1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전공분야별 졸업생 현황이다. 즉 공학전공과 설계전공의 학생비율은 60:40 정도로 유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2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졸업생들의 전문분야별 취업현황이다. 전체적인 전공분야 취업률은 2007년 62.5%, 2008년 72.4%, 2009년 80%로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7년과 2008년에는 졸업생들의 설계분야 취업이 많았으나, 2009년에 오면서 공학분야 취업이 설계분야를 넘어섰다. 기타는 비전공분야 취업, 직업군인, 미취업 등이다.

표 1. 연도별 전공분야별 졸업생 현황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공학	시공	12명	59.0%	13명	52.0%	15명	66.0%
	구조	7명		2명		8명	
설계	설계	10명	41.1%	11명	48.0%	8명	34.0%
	환경	3명		3명		4명	
합계		32명(100.0%)		29명(100.0%)		35명(100.0%)	

표 2. 연도별 졸업생 전문분야별 취업현황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공학	시공	7명	21.9%	8명	27.6%	10명	42.9%
	구조	-		-		5명	
설계	설계	13명	40.6%	13명	44.8%	12명	37.1%
	환경	-		-		1명	
기타		12명	37.5%	8명	27.6%	7명	20.0%
합계		32명(100.0%)		29명(100.0%)		35명(100.0%)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취업이 반드시 학부과정 전공 분야별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표 1과 표 2를 비교해보면 구조전공이나 환경전공의 졸업생들은 해당 전문분야 취업이 쉽지 않고, 설계전공 졸업생들은 거의 100% 건축사무소에 취업했으며, 설계전공 이외의 졸업생들도 상당수 건축사무소에 취업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졸업생들이 학부의 전공과 다른 분야로 취업하는 경우를 대비한다면 공통과정의 교육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데이터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학과가 어떤 특정한 전공분야에만 집중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신입생들이 건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입학하여 2년간 탐색하고 전공분야를 선택하여 2년간 심화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후 취업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꾸준히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해나가고 있다.

3. 교육제도와 교육인증

2000년 경 우리나라에서 건축학 인증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될 때 일본에 들를 일이 있었다. 우리대학과 유사한 지방 중소규모 국립대학인 和歌山大學 환경시스템학과(건축과)를 방문했을 때 건축학 인증에 대하여 물어 보았다. 당시 足立啓 교수는 “아마도 도쿄의 어느 대학인가에서 그런 것을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대학은 아직 별 관심이 없다고 하였다. 선도적인 대학에서 시범적으로 운

영해보고 차차 확산될 때 기회를 보면 된다는 입장이었다. 최근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는데 인증에 관한 내용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반면 당시 우리나라의 대학 건축과들은 대부분 5년제 건축교육과정 도입을 서두르는 것으로 보였다. 마치 건축과에서 5년제를 하지 않으면 학과의 존립이 어렵게 된다는 생각도 많았던 것 같다. 따라서 많은 건축과들이 건축학/건축공학으로 학과를 분리하고 독자적인 운영에 나서게 되었다.

당시 필자도 새로운 학제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워크숍에도 가보면서, 우리학과가 처한 위상을 검토하여 5년제 도입을 유보하였다. 그 무렵 우리대학 교무처장이 건축학 5년제 도입을 권유한 적도 있다. 도내의 다른 대학들이 거의 5년제를 추진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필자가 부당성을 설명하자 더 이상 재론되지 않았다.

우리학과는 교육과정을 객관적으로 인정받고자 2003년도부터 공학교육인증에 뛰어들었다. 물론 교과과정에 설계분야도 포함시키고 추후 전문대학원에 진학할 때 문제가 없도록 배려하였다. 군산대 건축공학 프로그램은 예비인증을 거쳐 본인증을 받았다. 유효기간을 지속시키기 위하여 올해도 인증을 위한 평가가 진행 중이다. 지난 5월 한국공학교육인증원 평가단의 현장 방문평가 시 우리학과 교수들은 인증사업단장과 당당하게 “맞장”을 떴을 정도로 교육인증에 대하여 탄탄한 이론과 경험을 겸비하고 있다.

교육인증의 장단점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 형식에 너무 치우친다는 지적도 있고, 교수들의 교육 관련 업무가 늘어나는 것이 제일 큰 단점이다.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정착되기 전까지는 인증을 위한 각종 서류 작업이 교수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모든 교육요소가 순환하며 자율적으로 개선되는 과정을 이행해보면 모든 단점을 덮고도 학생을 위해서라면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4. 학과교수들의 의사소통

교육의 품질을 높이는 최선의 길은 학과교수들이 단합하고 원활하게 의사소통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1994년 학과가 설립되어 역사가 일천하긴 하나, 우리 학과 교수들은 지속적으로 의사소통하며 학생들 교육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 초창기에는 공식적인 회의 시간 이외에도 교수들이 수시로 소주잔을 나누면서 학사운영에 대한 많은 논의를 하였다. 입학정원이 40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학생 한명 한명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교수들 간에 공유된다.

학과교수회의는 학과설립 이후 매주 열여섯 있다. 학과의 역사가 10여년을 넘어서면서 학과교수가 공대 학장, 기획처장, 학생부처장, 공학교육센터장 등 학내에서 보직을 맡게 되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작년부터는 학과교수 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찬모임으로 학과주간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학생교육을 포함한 학과의 모든 문제가 여기서 논의되고 조정된다.

또한 방학 중에는 매번 학과교수 워크숍을 진행한다. 10년 전쯤 울산대학교 건축과를 방문하여 학과운영을 벤치마킹하면서 시작된 정규행사이다. 지난 학기를 되돌아보고 다음 학기 학과의 각종 계획을 수립한다. 2003년 공학인증이 시작된 이후는 이 때 각종 학과운영, 교과목, 학생상담, 동아리지도 등에 대한 CQI(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를 작성하며 이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진다. 올해는 모처럼 우리학과에 재직하다가 다른 직장으로 옮긴 OB멤버들까지 제주도로 초청하여 의미있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학교차원의 수업결손이 많은 행사(체육대회, 축제 등)에 불참하고 그 정신을 살려서 학과의 단합을 강화하는 대안적인 행사를 치렀다. 가을이면 게시판이 모자랄 정도로 밀려오는 건축전 포스터가 천덕꾸러기로 전락하는 것을 보고 이번 건축전부터 포스터는 소량만 프린트하여 사용하고, 건축학회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홍보하기로 하였다. 또한 건축전 팸플릿도 전자출판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하였다.

학과교수친목회를 결성하여 매월 일정 회비와 연구/용역 오버헤드로 기금을 조성해오고 있다. 교수들을 위한 일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위해서도 비용을 지출한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장학금, 무이자 학자금 대출(아직까지 상환한 학생은 한명도 없다), 학과교수 공동 경조비, 교수 단합대회 경비, 교수해외연수 지원

등에 긴요하게 사용된다. 상당한 기금이 조성되고 있어서 앞으로 학과가 성장하는데 종자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5. 수요자들의 의견

우리학과 학생들은 3학년 여름방학에 실무실습(3학점)을 나간다. 학생들이 원하는 지역/전공분야로 담당 교수들이 실습장소를 추천해주며 4주 이상 현장에서 트레이닝을 받는다. 학과교수들은 전공분야별로 분담하여 실습현장을 방문하여 실태를 점검하고 지도자와 상담한다.

필자는 올해 학생들이 실습중인 서울의 10개 건축사무소를 방문하여 사장/소장/팀장들과 교육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었다. 사장이나 소장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본을 중시하는 건축교육을 원했고, 대다수 팀장은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각종 그래픽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능력, 즉 도구 훈련의 건축교육을 우선적으로 요구하였다. 앞으로도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만, 우리학과는 기본과 도구의 균형잡힌 교육을 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또한 실무실습 대상은 몇 학년이 적절한가도 논의하였다. 실습장소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4학년 학생을 원하는 곳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학생들이 3학년 때 현장실습을 다녀오면, 개개인이 앞으로의 학습 방향을 잡고 졸업 시까지 열심히 노력할 것으로 생각했다. 대부분 건축사무소 사장/소장은 우리의 생각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어떤 건축사무소는 여름방학에 학교에서 추천한 4학년 학생을 실습시켜 보고 졸업과 동시에 채용하고자 하는 생각도 갖고 있었다. 따라서 실무실습 시기 문제는 원래 계획대로 3학년을 원칙으로 하되, 4학년도 가능하도록 교과과정을 변경할 생각이다.

6. 건축사 자격제도

우리학과는 4년제 건축공학 프로그램 속에서 설계분야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건축사 자격제도에 관심을 갖고 있다. 입법 예고된 건축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보면, 건축사가 되기 위해서는 인증된 건축학 전문학 위 과정(학사과정 또는 대학원 과정)을 졸업하고, 3년 이상 실무수련을 받은 후,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된다. 또한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고 자격을 갱신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보도자료(2009.7.21)에 의하면 이 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올 정기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한편, 건축사법 개정으로 인해 현재 건축사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기존 건축사예비시험은 2019년까지, 건축사자격시험은 2026년까지 병행하도록 하여 충분한 응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구제도에 의한 건축사자격 인정/경과조치 문제는 보이지 않는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가정해보자. 인증된 5년제 프로그램의 건축학과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학과의 졸업생들이 건축사가 되기 위해서는 인증된 대학원 과정을 이수한 후 절차를 밟거나, 정해진 기간 내에 건축사예비시험과 건축사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현재 비인증 5년제 건축학과들은 짧은 시간 내에 교육체제에 대하여 심각한 재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이후 몇 년 내에 인증을 받는다 할지라도 인증 이전에 배출된 학생들에 대한 문제가 남고, 2019년까지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2012년 이전에 교육체제를 변경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대다수의 건축과들이 5년제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건축사자격시험과 연관성일 것이다. 과연 국내 건축사무소에 국제적 수준의 건축사가 어느 정도나 있는 것이 적정할까? 정밀한 추정이 필요하겠지만 현재 5년제 건축학과 졸업생 정원은 너무 과도한 것이 확실하다. 또 지역의 대부분 건축물인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을 꼭 이런 건축사만이 설계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 타당할까? 또한 국제수준의 건축사를 뒷받침하는 하위 건축기술자는 어느 기관에서 육성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오래전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는 2급 건축사 같은 제도의 부활을 제안한다. 즉 자격시험 응시 조건을 다르게 정하고, 건축의 규모나 용도를 제한하여 건축행위를 허용하는 2급 건축사와 같은 자격제도를 병행하여 돌파

구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7. 맺는 말

“형님이 계획가(planner)이지 디자이너(designer) 입니까? 솔직히 저도 디자이너라기보다는 계획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 대형 건축사무소 소장의 진솔한 말씀이다. 건축 디자인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는 교육으로 가능할지 모르지만, 최고 수준의 건축 디자이너는 어느 정도는 타고나야 한다고 믿는다. 그간의 국내의 저명한 건축 디자이너들이 꼭 교육의 산물인가는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가 많다. 건축교육의 목표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한 건축사무소 소장에 의하면 직원을 채용할 때 공모전 입상경력과 포트폴리오를 많이 참조한다고 한다. 신입사원의 자질을 판단하여 현상설계, 턴키설계, 실시설계 등의 파트에 구분하여 배치한다. 즉 직원의 자질과 설계 작업의 종류, 즉 상상력과 조형능력이 중요한 현상설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능력이 중요한 실시설계, 이들 중간 수준인 턴키설계 등을 맞춘다는 이야기이다. 학제에 따른 신입사원의 차이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한다.

건축교육은 그 교육기관이 처한 명확한 위치(position) 파악과 목표설정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본다. 또한 학생들이 자질을 발견하고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우리는 교육을 공급자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학생상담, 동아리지도, 학과회의, 교육관련 세미나, 교육인증, 워크숍 등이 수단이 될 수 있다. 교수들이 개인적인 연구 활동도 중요하지만 학생의 교육과 취업에 꾸준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고민할 때만이 건축교육 체제의 문제점도 개선되고 교육의 품질 향상도 가능할 것이다.□